

 <p>대한민국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p>	<h1>보도자료</h1> <p>(2019. 5. 7 화)</p>	 <p>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p>
	<p>국회미래연구원 http://www.nafi.re.kr (02) 786-2199</p>	

13대 분야로 살펴보는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

- 「⑨ 인구·사회」 분야 -

- 요약 -

국회미래연구원(원장,朴進)은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발굴」 연구의 13대 분야 중 ‘인구·사회’ 분야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최항섭 교수(국민대학교 사회학과), 박찬웅 교수(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배영 교수(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이명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최색별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가 국회미래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50년 한국의 인구·사회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변화를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조망하였다. 미래 동인으로 설정된 삶의 결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차지하는 요인 변화, 관계형성에서 면대면 접촉의 중요성 변화, 인적자원영역 패러다임 변화, 유토피즘과 현재주의 변화, 부와 권력의 집중 변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가능한 미래들을 예측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연구진은 2050년 한국 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미래 시나리오들을 도출하고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했다. 향후 연구원은 13대 분야에 대해 종합시나리오와 정책과제 분석 중심의 주요 연구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끝>

작성자 :

(위탁연구 총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김유빈
(02-2224-9802, ybkim@nafi.re.kr)
(인구·사회 분야 담당)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채정
(02-2224-9809, chaelee@nafi.re.kr)

국회미래연구원(원장, 朴進)은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발굴」 연구의 13대 분야 중 ‘인구·사회’ 분야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다. 최항섭 교수(국민대학교 사회학과), 박찬웅 교수(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배영 교수(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이명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최셋별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가 국회미래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 인구·사회 분야의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 분야 미래를 추동하는 핵심 동인으로 삶의 결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차지하는 요인 변화, 관계형성에서 면대면 접촉의 중요성 변화, 인적자원영역 패러다임 변화, 유토피즘과 현재주의 변화, 부와 권력의 집중 변화를 설정하고 미래예측의 방법론인 시나리오 매핑(scenario mapping)을 활용해 각 주요 동인의 극점과 동인들 간의 복합적 관계 및 돌발변수를 고려하여 2050년경 한국 사회의 미래 모습을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2050년 대한민국의 인구·사회 분야 시나리오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배틀그라운드’ 사회다. 미래 한국 사회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중시하고, 협력보다는 독립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부와 권력이 극소수에 집중되고 대다수는 야만의 경쟁 속에서 자신의 생존만을 최우선하여,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와 유사한 사회에 살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같은 예측의 근거는 최근 한국 사회가 맞이한 심각한 저출생과 개인주의, 이로 인한 전통적 가족구조 붕괴 현상이다. 연구팀은 2050년에는 출산율이 0.8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고, 1인 가구가 많아지며, 결혼 대신 비혼(非婚) 동거가 보편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1970년 4.53명이었던 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추락했고, 감소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개인주의의 심화와 함께 삶의 방식과 가족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사람들은 대면하는 것을 피곤하고 비효율적인 일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 홀로그램, 가상현실 등에 익숙해져 직접 만남을 꺼리게 된다. 이미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경제위기는 ‘배틀그라운드 사회’의 상황을 악화시킬 돌발변수이다. 현재로서는 ‘IMF’까지는 아니어도 대량실업은 충분히 예상된다. 기술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증발시키기 때문이다. 2017년 한국고용정보원도 2030년 국내 398개 직업이 요구하는 역량 중 84.7%는 AI가 인간보다 낫거나 같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연구팀은 2050년 한국 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다중(Multitude) 사회’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는 과편화된 개인의 집합인 대중을 넘어, 각자의 자유를 맘껏 누리면서도 타인과 연대해 주도적으로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사회를 말한다.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협력과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개편하고, 3~4인 가구에 맞춰진 가족정책을 1인 가구도 불리하지 않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보편화될 비혼 동거를 결혼과 같은 수준의 정책적 지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출산을 회복에 방점을 찍었던 정부 정책의 근본적 변화”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시나리오를 통해 2050년의 대한민국을 예측하고, 바람직한 미래로 가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18년부터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협의를 통해 미래 환경변수 13대 분야를 확정하고, 각 분야별로 내외부 연구진이 참여하는 11개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향후 연구원은 13대 분야에 대해 종합시나리오와 정책과제 분석 중심의 주요 연구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작성자 :

(위탁연구 총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김유빈

(02-2224-9802, ybkim@nafi.re.kr)

(인구·사회 분야 담당)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채정

(02-2224-9809, chaelee@nafi.re.kr)